

# 새싹편지 5

## 5월 행사 소식

### 문학연구회 공연



박지연, 박은화, 김미라 학생이 연습을 하고 있다.



공연 중 무대의 뒤 풍경

5월 4일 어린이날을 맞아 문학연구회에서는 대전 대덕구에 있는 송촌초등학교에서 어린이들에게 그림자공연을 선물했다. 동아리 학생들은 어린이들을 위한 뜻 깊은 공연이기에 그동안 많은 준비를 해왔었다. 아이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에 보람을 느껴 앞으로도 다양한 문학 공연을 연구하고, 선물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기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 교육 실습 발표회



5월 10일 우송대학교 유아교육과 4학년 학생들의 교육 실습 발표회가 가정관 시청각 실에서 있었다. 이 날은 한 달 동안 있었던 교육 실습의 소감과 자신이 경험한 교수방법 등을 발표하는 시간이었다. 유아교육과 학생이라면 누구나 거쳐야하는 실습을 통해 유아들을 직접 만나 한 아이의 중요한 경험의 일부가 된다는 어깨가 무거운 경험을 한 덕분인지 학생들은 한층 더 교사다워진 모습이였다. 이 날 발표를 통해 4학년 학생들은 실습 경험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며 다른 실습생과의 교류를 통해 많은 것을 느끼게 됐고, 3학년 학생들에게는 선배의 경험을 통해 내년을 준비하며 각오를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

### 체육대회

5월 10, 11일 이틀간 우송대학교 운동장에서 체육대회가 열렸다. 학생회가 주도하고 1학년 학생들이 선수와 응원단이 되어 참가한 이번 대회에서 유아교육과는 준우승의 쾌거를 이뤄냈다.

## 스승의 날

5월 15일은 스승의 은덕에 감사하고 존경하는 뜻으로 제정된 날이다. 모두 한마음으로 카네이션을 준비해 교수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교수님 사랑해요!

## 전공시험

5월 17일 4학년 학생들의 전공시험이 있었다. 공부에, 실습에, 실습 결과 발표에, 보강, 거기에 시험까지, 고단한 학생들의 모습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날이었다.



### 지원이가 2012학번에게 보내는 편지

사랑하는 친구들아!

“종합우승 2등!” 이 말을 듣는 순간 우리 모두 환호했던 거 기억나니? 아직은 나뭇가지가 앙상해 보이던 때, 옷 몇 겹을 껴입고 준비운동으로 시작해 어느덧 꽃잎이 고개를 디밀고 나와 화창해진 아름다웠던 5월. 우리 마음만큼이나 뜨거웠던 체육대회, 이제는 추억이 된 그 장면들을 떠올려볼까 해.

처음에 모여서 선수 선발했던 일 기억나니? 서로가 선수가 되고 싶어 했잖아. 어쩔 수 없이 응원한 아이도 생겼지만, 후에는 고된 연습에 지쳐 응원을 부러워하는 아이들이 생겨났어. 그래, 모두 힘들어했었어. 주말에 일이 있어도 나와야 하고, 약속도 못 잡고, 매일 두 시간 이상 연습하는데 아파도 꼭 참고 뛰는 모습이 정말 태릉에 와있는 기분이었잖아. 이렇게 열심히 연습한 적이 처음이어서 다소 생소하긴 했어.

우리 유아교육과는 남자 선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철도전기과와 연합으로 참가하는데, 내가 출전하는 줄넘기는 함께 손을 잡고 경기를 해야 했어. ‘대학생활의 기쁨이 다 이런 거 아니겠어’ 하며 살짝 기대도 있었지만, 손을 잡는다는 게 너무 어색하고 오글거리더라고...그래도 제일 잘하는 줄넘기를 하는 게 낫겠다 싶었지. 너희는 짝꿍이 맘에 들었어? 내 짝꿍은 혼잣말을 매우 크게 말하는 아이였어. 게다가 줄넘기 30개 넘는 게 어찌나 힘들던지 많이 지쳤었어.

다른 종목의 선수들이 야위고 응원하는 아이들이 지쳐갈 때, 발야구를 하는 아이들을 보면 신나 보여 아이들이 부러워하기도 했어. 하지만 다른 종목보다도 일찍 나와서 늦게까지 연습하고, 언니들의 특훈까지 받았잖아. 철도전기과에서는 선배의 위엄이 경기에 끼치는 영향을 보고 놀랐었지.

드디어 그날이 왔어. 개막식은 어땠어? 나는 처음에 ‘올림픽 여나...’ 했었는데, 입장하는 모습을 보니-다른과의 특성 파악도 하고, 누가 있는지도 봐두고 말이야-정말 멋있더라고. 너희도 멋있었지?





피구와 발야구는 대회 당일 날에도 예선을 위해 아침 일찍 나와 연습했지만, 결과는 예선 탈락. 그런데 애들아, 모두가 정말 멋있었어. 계주, 5인6각, 씨름, 줄다리기 선수들아, 정말 수고 많이 했어. 우리가 보낸 박수소리 잊지 않았지. 그리고 줄넘기 선수들아! 어떻게 121개를 넘니? 우승했을 때의 그 짜릿함과 감동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것 같아. 다시 하라면 절대 못하지만 말이야.

참, 우리보다 더 오랫동안 땀 흘리고 목이 쉴 때까지 응원해준 1학년 친구들아 너희의 응원이 우리 움직이게 한 거야. 정말 고맙고, 사랑해. 이번을 계기로 우리 2012학번이 최강의 학번이 되었으면 좋겠다. 모두 아자아자!

추신. 언니들 보고 계시죠, 연습할 때는 원망도 했었지만, 이해해주실거죠. 저희도 다음에는 이번 대회를 떠올리며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좋은 추억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선플, 알고 계신가요?

선플은 ‘착할 선’과 ‘리플’이 합쳐진 단어로, 악플에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한마디로 ‘칭찬 댓글’인 것이죠. 선플을 달면 인터넷상의 근거 없는 유언비어와 악플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사이버공간뿐 아니라 실생활에서도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가끔은 친구에게 뜬금없이 ‘오늘따라 예뻐 보인다’고 이야기해주거나, 어린 동생이 있다면 ‘그동안은 받아쓰기를 70점 받더니 이번엔 90점을 받았구나!’ 등의 칭찬을 해주는 것입니다. 물론 그저 좋은 말만 해준다고 해서 항상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칭찬에도 다양한 요령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요령으로, 칭찬을 할 때는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모호하고 추상적으로 하는 칭찬보다는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칭찬하는 것이 상대의 마음을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되도록 공개적으로 하도록 하고, 셋째, 거짓 없이 진지하게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결과보다는 과정을 칭찬하도록 합니다. 자신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이 있었다는 뜻이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가 변해온 과정을 언급하며 칭찬한다면 그 효과가 배가 될 것입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친구든 동생이든 그가 조금이라도 잘한 점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다가가 칭찬을 해줘 보는 것은 어떨까요. 칭찬은 효과가 가장 큰 무기입니다.



문학 매체 제작

# 2088

시간의 기록

2학년은 지난 3개월간 아동문학 덕분에 스무 살 청춘의 봄을 뜯고, 오리고, 붙이고, 그리며 보냈다. 예술혼을 불사른 지난날들의 기록이 추억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이 글을 남긴다.

### 3월 5일. 아동문학 수업 첫 날

교수님께서 앞으로의 일정을 설명해주셨다. 중간, 기말고사가 합쳐서 40%라고 하셨다. 그 때는 좋다고만 생각했다. 인간은 어리석은 동물이다.

### 3월 14일. 동화책 리스트 작성하기

아동문학의 특성에 대해 배웠다. 배운 것을 토대로 문학성 있는 작품을 선정해 10개 이상의 리스트를 작성하라고 하셨다.

### 3월 21일. 계몽문고 견학

동화책을 접할 기회가 부족했던 학생들을 위해 서둘러 서점을 견학하기로 했다. 수업시간에 교실이 아닌 곳에서 모인다는 것만으로도 실렸는데, 사장님은 우리가 오기만을 기다렸으며 음료와 그동안 모은 자료를 프린트해 나눠주셨다. 적극적인 사장님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동화구연도 해주셨는데, 감상하던 우리는 어느새 아이의 마음이 되어 큰소리로 “왜요”를 외치고 있었다. 각자 흩어져 동화책을 보다 보니 그림책은 어른에게도 향수를 불러일으키고, 교훈을 주는 문학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 3월 26일. 문학 매체 제작 도입

작성한 동화책 리스트에서 3권을 선택하라고 하셨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삼세번이라고 해서 숫자 3을 유난히 좋아하는데, 왠지 이 숫자에서 전해오는 기운이 불길했다. 왜 슬픈 예감은 틀림없이 없나~♪



그림동화

차혜수  
<마법사  
유치원  
선생님 >



그림동화 시연 중인 정지혜 학생

### 3월 28일. 문학 매체 유형 소개

매체 제작 유형에 대해 배우고, 그동안 선배들이 만들었던 작품들을 보여주셨다. 모두가 만들기가 싫어하는 그림동화는 필수! 멀티미디어는 가산점을 주겠노라고 하셨다. 그래 선택했어! 해야 할 세 가지 중에 이미 두 가지가 정해졌다. 이제 동화와 매체만 잘 연결하면 된다고 생각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은 진리다.



테이블동화

이화영  
< 쥐의 결혼 >

### 4월 4일. 과제 개요점검

자신이 선택한 작품과 유형을 결정해 교수님께 검사를 맡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검사를 맡기 위한 줄서기 경쟁이 시작했다. 한 번에 통과한 친구들은 이미 인정을 받은 듯 기뻐했다. 참 긍정적이다

### 4월 18일. 과제 중간점검

현재 상황을 보여 드리고 평가받는 시간이다. 꾸준히 준비해온 친구들도 많았지만, 아직 선정도 못 한 걱정되는 친구들이 꽤 많았다. 그렇다고 큰일이 난 것 같이 느껴지지는 않았다. 우리에게 중간고사라는 더 큰 악재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월요일은 중간고사, 수요일은 과제 점검. 무엇이 더 큰 악재일까? 또다시 선택해야 했다.

### 4월 23일. 중간고사

시험 감독하러 들어오신 교수님께서 과제를 미뤄주겠노라고 말씀하셨다. 천사의 목소리였다. 집에 돌아가 잠깐의 수면 후 일어나 생각해보니, 주말 동안 밥 조금만 먹고, 거의 밤새워가며 과제했던 추억이 떠올라 울컥했다. 중간고사는 이미 끝났다. 공부도, 과제도 미리미리 해야 한다.

**4월 30일. 최종점검**

마지막 점검이어서 작품이 거의 만들어져 있어야 했다. 교수님은 지금까지의 상황을 짚어보며 스스로 장, 단점을 짚어보게 하셨다. 고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에 기뻐하며 서로의 작품을 칭찬해주었다. 폭풍전야의 날이었다.

**5월 8일. 과제 제출 & 전시**

우송관 311호에 자신의 작품을 전시하면 과제는 끝이다. 하나, 둘 작품이 교실을 채워나갔다. 더는 책상이 없어 바닥에 놓을 수밖에 없었던 친구들은 자식과도 같은 작품이 그곳에 놓이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했다. 제출을 끝으로 드디어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구나 생각하진 않았다. 내일이면 교수님께서 무언가를 말씀해주실 것이다.



OHP

김소담  
<아앗!  
앞니가  
흔들흔들 >

**5월 9일. 책거리**

교수님께서 책거리를 하기 위해 케이크와 음료를 준비해놓으셨다. 정말 마무리하는 게 맞구나란 생각에 환호했다. 게다가 수업시간에 야외에 나가 케이크를 먹고 있더니 정말 믿어지지 않는 일이었다. 잠시 후 고쳐야 할 점을 듣기 위해 줄서기가 시작됐다. 역시 우리 것은 소중한 것이여! 더불어 구연도 해볼 거라고 말씀해 주셨다. 그래도 좋다.

**5월 16,23일, 6월 1일. 과제 시연**

3개 조로 나누어 시연 했다. 막상 해보니 만들 때는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점도 보이고, 구연도 연습대로 되질 않았다. 대부분이 처음이라 긴장한 듯 보였지만, 끝까지 열심히 하는 모습에서 미래의 교사가 된 모습이 그려졌다.



오영하 학생이  
<무지개 물고기 >  
를 용판동화로 제작  
후 시연 하고 있다.



그림동화

조예솔  
<조금 다를  
뿐이야 >

용판동화

연솔이  
<삐악이는  
홍내쟁이 >



막대동화

최유라  
<삼년고개 >



그림동화

오혜리  
<엄마가 화났다 >

이로써 제작에서부터 시연까지, 문학 매체 제작이라는 긴 여정이 막을 내렸다.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과 두려움을 이겨내고, 끝까지 온 힘을 다한 유아교육과 친구들과 모두에게 박수를 보낸다.

지도 : 성원경 교수님  
만드는 사람들. 학생 : 3학년 김진희  
2학년 김민아 이다영 이정현  
1학년 박지원 여은솔